

## 환경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심층세대론의 관점에서 -

정 수 복  
(사회운동연구소장)

### I. 서론

우리 사회의 공적 담론 가운데 상투적인 것들이 여럿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익숙한 것은 교육책임론이다. 부정부패, 무질서, 부실공사, 환경파괴 등 사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문제는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육을 바로 잡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담론이 바로 '교육책임론'이다. 그렇게 우리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육에 책임을 전가하며 문제를 방치해왔다. 왜냐하면 그러한 담론을 뒷받침할 교육의 질적 개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교육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교실붕괴를 말하고 있다. 또 가정교육은 이제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가정 교육이 실종된 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오로지 '자기 아니 기 살리기' 경쟁만이 있을 뿐이고 입시 준비를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뿐이다. 물론 사회교육도 잘되고 있는 편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사회교육이 학교 교육이나 가정 교육에 비해서 좀 더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사회교육은 권위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이거나 실용적이고 취미에 관련된 지식의 전달 기제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대 시민운동의 등장과 더불어 책임 있는 시민, 창조적 개인이 비로소 겨우 간신히 태어날 수 있게 된 상황이 마련되었다. 정치 권력의 이데올로기 교육에서 벗어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문제 제기를 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자신들의 주장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회 교육 활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다양한 활동 자체가 사회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들은 직접적인 사회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바야흐로 사회교육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시민단체 특히 환경단체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지만 이 글의 주장은 언론기관의 다양한 환경 캠페인이나 환경 관련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것이다. 또 학교환경교육과 가정환경교육 그리고 사회환경교육이 유기적으로 관련될 때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II. 사회환경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사회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 환경단체의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들과 신문 방송들의 다양한 캠페인에 힘입어 이제 누구나 입으로는 환경이 파괴되어가고 있어 문제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서부터 개인의 생활 양식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환경을 이야기하고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환경운동을 구경하는 구경꾼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sup>1)</sup> 정부나 정당의 환경정책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유권자들의 환경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때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아직도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새만금 사업의 강행은 그러한 배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다.

1) 환경운동은 현재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처럼 운동 선수와 관람객이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 운동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구경하는 사람 따로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구경꾼과 선수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 환경운동의 확장이고 심화이다(Brown, 1996: 16쪽).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양한 사회교육기관들은 일반 시민들의 환경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먼저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 기관들은 경제성장을 당연한 전제로 놓고 난 다음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환경기술의 개발이나 정화시설의 설치, 합리적인 환경정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흔히 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환경개량주의라고 불렀다. 이러한 입장에서 서는 사람들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을 활용하고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왔다.

이에 반해서 환경단체들은 오늘날의 환경문제를 인류의 위기이며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지구 자체의 위기라는 방식으로 이해해 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환경단체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생태주의의 관점을 취해왔다고 볼 수 있다. 환경단체들이 해 온 사회환경교육은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환경단체들은 생태주의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생태 위기 의식을 환기시켜 왔고, 그 다음에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100가지 방법” “가정에서의 환경을 살리는 50가지 방법” 등의 구체적인 환경 지식과 실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러한 환경 문제가 있는데 저러저러한 실천을 하면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한 교육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환경교육이 현실적으로 정책의 변화나 생활양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환경위기와 환경 문제 사이에 존재하는 행위자들을 수동적 교육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해결할 실천 지침을 알려주면 그대로 따라할 것이라는 기계론적 가정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환경교육 패러다임의 한계는 이미 현실로 증명되었다. 물론 그러한 교육의 성과로 쓰레기 분리수거제가 정착을 하고 동강 댐의 건설을 저지하였으며 많은 환경 보호 활동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이 낡은 사회환경교육의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진전을 보기 어렵게 되었다. 새로운 사회환경교육의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생태위기와 환경문제를 인식하는 행위 주체에 초점을 맞춘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떠한 경고와 지식도 그것을 수용하는 행위 주체의 내면적 인지체계와 세계관의 변화가 없으면 결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관점에 선다. 행위자를 한낱 객체로 설정하여 교육의 대상으로 축소, 격하시키면서 사실의 복잡성을 내세워 전문가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전문가 중심주의는 새로운 사회환경교육 패러다임의 가장 큰 적이다. 전문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생각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책임을 제거,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sup>2)</sup>

패러다임의 전환은 다른 말로 하자면 세계관의 전환이다(Gough, 1987: 53쪽). 우리는 행위 주체가 인간, 사회, 자연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변화를 ‘개종’(conversion)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개종은 가장 심층적인 수준에서 의식과 행위 지향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아래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III. 새로운 사회환경교육 패러다임

#### 1) 개종이란 무엇인가?

개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과 세상의 일을 보는 한 개인의 관점이 하나의 명확한 초점을 갖게 되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세상의 일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흔히 개종 이전과 이후에는 현저하게 구별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개종은 단지 인식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개종은 보통 종교와 신앙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페미니즘이나 생태주의 같은 새로운 전망을 갖게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아래에서 개종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먼저 페미니즘으로 개종한 한 여성신학자의 말을 들어보자.

“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나에게 인간의 현실과 세계를 전적으로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게 만든 창문과

2)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박영신(2001: 120-121쪽)을 볼 것.

도 같은 역할을 해 왔다. 그 세계는 이전에 내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다. 인간의 현실과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는 데에 중요한 창문의 틀을 제공해 준 페미니즘과의 조우는 그러한 의미에서 나의 삶에 인식의 근원적인 전환을 가져다 준 회심(conversion)과도 같은 의미로 남아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든지 차별을 용납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나에게서 오랜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가능했다.”<sup>3)</sup>

19세기 프랑스의 여성 작가 조르주 상드(George Sande)는 자신의 종교적 개종체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내 속에서 커다란 혁명이 일어난 것 같았다. 나는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 그것은 일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마치 영혼 속에 불길을 일으키는 열정처럼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신을 찾지 않았다. 그런데 종교적 이상, 기독교인들이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 갑자기 나를 사로잡았다. ... 그날 이후 나의 내면적 투쟁은 멈추었다. 나의 종교적 헌신은 정열적인 것이었다. 한번 마음이 사로잡히고 나니까 이성만은 단호하게 문밖으로 밀려났다. 그것은 광적인 기쁨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나는 모든 것을 믿었다. 투쟁없이, 고통없이, 거짓없이, 수치심없이.”<sup>4)</sup>

198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한 여학생의 다음과 같은 고백도 ‘개종’의 전형적인 보기이다.

“대학에 들어가 우연한 기회에 사회과학적 인식에 접하게 되었을 때야 눈이 번쩍 뜨이고, 흐끄무레한 안개가 걷히면서 날이 개듯이 내 웅크린 가슴을 열어 제낄 수 있었다. 아 이거로구나, 이거였어 하면서 선뜻 다가간 해방감이야말로 한 개인의 삶을 조건짓는 사회적 틀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제 세상은 알 수 없는 혼돈의 덩어리가 아니라 나름대로 뚜렷한 질서와 법칙으로 움직여나가는 실체였다. 활개치며 살고픈 내 소망을 가두던 가난과 소외에는 제거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 가난은 그리고 가난에서 비롯된 모든 불행은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모순된 사회제도의 파생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이다..... 내 눈을 트이게 하는 모든 옳은 것의 지침은 나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다.”<sup>5)</sup>

위의 세 개의 개종의 사례를 통해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개종은 복잡한 내면적인 과정을 거쳐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세상을 문제로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든지 투명하게 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새로운 관점과 접하게 됨으로써 일순간 개안(開眼)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개종은 인지적 과정이면서 동시에 정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인지적인 과정은 좀 더 긴 시간을 통하여 진행되지만 정서적인 변화는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인지적 과정이 없는 정서적 변화는 없다. 다만 사례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셋째로 개종을 경험한 사람은 이후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나가게 된다는 점이다. 인지적 변화와 정서적 변화는 강력한 행동을 위한 내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된다.

## 2) 생태학적 개종(ecological conversion)

한 개인의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생태학적 자아(ecological self)가 있다. 자아와 외부의 자연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 개인마다 다른 생태학적 정체성(ecological identity)이 형성되는 것이다.<sup>6)</sup> 세상에 태어나서 자연과 맺은 경험 그리고 자연에 대해 보고 들은 이야기, 삶과 죽음, 그리

3) 강남순(1998), 7-8쪽에서 인용.

4) 정수복(1994), 47쪽에서 재인용.

5) 정수복(1994), 63쪽에서 재인용.

6) 생태학적 자아, 생태학적 정체성, 생태학적 고백, 생태학적 명상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Thomashow(1995)

고 지구와 우주에 대한 생각 등이 모두 한 개인의 생태학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현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인 도시에서 태어나고 있다. 이들은 자연과 절연되어 살고 있다. 그러나 과거 농촌 사회에서는 인간은 흙과 함께 살았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상이한 성장의 배경이 상이한 생태학적 정체성을 구성하게 할 것이다. 문제는 80%의 인구가 도시에 모여 사는 오늘날 어떻게 하면 도시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연과의 관계를 공생적인 관계로 인식하게 될 것인가라는 점이다. 어떻게 하면 개개인의 '생태학적 성찰성'(ecological reflectivity)의 정도를 높여 '생태학적 고백'(ecological confession)을 거쳐 생태학적 개종에 도달할 것인가가 사회환경교육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태주의로의 개종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생태학적 개종'이라고 볼 수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 관점의 변화가 개종이라면 생태학적 개종은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그물망이라는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때 자연은 공생과 연대, 나눔과 보살핌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서 생태학적 개종이란 '생태학적 세계관'(ecological world-view)으로의 점진적 이동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태주의자는 생태학적 세계관을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과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정체성이 바로 생태학적 정체성이다. 생태학적 정체성을 통해 자신이 세계에 존재하는 방식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되는 것이다(Thomashow, 1995: 6쪽).

아래에서는 생태학적 세계관의 내용을 좀 더 분명히 해 본다.

### 3) 생태학적 세계관

생태학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행동에 일정한 방향을 부여하는 것이다. 생태학적 세계관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 그리고 풍요로운 소비사회를 지향하는 현재의 지배적인 세계관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관으로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 물질적 욕구의 절제, 정신적 가치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대안적 세계관이다. 생태학적 세계관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학적 세계관은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에서 자연중심주의(ecocentrism)으로의 시각전환을 뜻한다. 둘째, 생태학적 세계관은 '수학적, 기계적' 이성에 앞서 '미학적, 예술적 이성'을 더 근본적인 것으로 본다. 셋째, 생태학적 세계관 안에서는 자기중심적 배타성이 사라지고 공동체 중심적 협동이 살아난다. 넷째, 생태학적 세계관은 물질적 소유나 쾌락적 경험보다는 내면적 체험과 의미 구성을 강조한다.<sup>7)</sup> 생태학적 세계관으로의 개종에는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체험'(inner, subjective experience) 세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Gough, 1987: 52쪽, 54쪽). 생태학적 세계관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시장에서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살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와 교감하며 협력한다(Thomashow, 1995: 4쪽).

아래에서는 위에서 정의한 생태학적 세계관을 표현하는 몇 가지 보기를 들어본다. 먼저 한국의 생태론자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시애틀 추장의 "우리는 결국 모두 형제들이다"라는 제목의 연설이다. 이 연설은 그것이 행해진 19 세기라는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 오늘날에도 생생한 감동으로 전해진다. 녹색평론의 편집인인 김종철은 이 연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연설문의 아름다움과 진리성은, 본질적으로 우주와 세상을 조화로운 질서있는 하나의 전체로서 보는 통합적 비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력은 실은 인류사의 오랜 전통에서 많은 현자들과 신비가들에게, 그리고 많은 구전전통에서 잘 알려진 세계관에 뿌리를 둔 것

를 볼 것.

7) 생태학적 세계관의 특징에 대해서는 박이문(1998: 96-104쪽)을 참조할 것. 이와 함께 오늘날의 지배적 세계관을 '경제주의로 규정하여 이를 비판하면서 '생태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박영신(2001)과 정수복(1999, 2000)도 볼 것.

다..... 모든 존재의 공통한 운명과 상호의존성에 언급하는 인디언 추장의 발언에 귀기울인다는 것은 우리가 좀더 겸손하고 책임감있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sup>8)</sup>

그러면 시애틀 추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슭, 어두운 숲속 안개, 말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나뭇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 홍인(紅人)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백인은 죽어서 벌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 버리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홍인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짐승들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모든 짐승이 사라져버린다면 인간은 영혼의 외로움으로 죽게 될 것이다. 짐승들에게 일어난 일은 인간들에게도 일어나게 마련이다. 만물은 서로 맺어져 있다.....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주는 피와도 같이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그물에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짓이다.”<sup>9)</sup>

구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다음과 같이 자연에 대해 진술한 것은 생태학적 세계관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생태학적 자아가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자연과의 강렬한 일체감은 어떨 때는 우리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나의 느낌을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는 없다. 아마도 참된 신앙인들은 내가 체험한 솟구치는 듯한 영(靈)의 감격을 교회를 통해서 체험할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대자연이 또한 하나의 교회와 같다..... 나는 대자연과 아주 가깝게 유기적으로 일치된 듯한 느낌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대자연과의 유기적으로 일치된 느낌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내가 속한 사회와의 관계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다. 대자연은 나의 성격, 나의 세계관 형성에 근본적 영향을 미쳤다. 대자연을 통해서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동시에 나는 대자연이 또한 내 마음 안에 나와 함께 살아있다고 느낀다.”<sup>10)</sup>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은 런던의 국립의학연구소라는 안정된 직장이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무덤에 이르기까지 아무 탈없이 지낼 수 있으리라는 숨막히는 전망”을 갖게 하고 그러한 전망이 창조성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연구소를 떠나 “무엇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고용주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를 선택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지구상의 나머지 생명의 이익을 지키는 대변자라는 비어있는 직위를 떠맡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내가 대변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모든 생명이며, 여기에는 박테리아와 그 밖의 별로 매력적으로 생기기 않은 생명들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대변자들은 너무나 많지만, 인간 아닌 생명들을 위해 발언하는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구는 우리보다도 그러한 생명들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밤이면 별들과 은하수를 볼 수 있다. 낮에는 나는 새소리를 듣고 땅내음을 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구를 보고 느끼며,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적 청지기 개념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다.”<sup>11)</sup>

8) 김종철(1993), “편집자 해설” 16-17쪽.

9) 윗 글, 17-20쪽에서 발췌 인용.

10) Mikhail Gorbachev, *Memoirs: Mikhail Gorbachev*, Georges Peronasky & Tatjana Varsavsky공역, 134쪽. 여기서는 김성수, 『함석헌 평전』(서울: 한길사, 2001) 171쪽에서 재인용.

11) 제임스 러브록, “가이아를 위하여,” 김종철(1993), 161쪽.

마지막으로 베트남 출신의 승려 틱낫한(Thich Nhat Hanh)의 말을 들어보자.

“만일 당신이 시인이라면 이 종이 안에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구름 없이는 물이 없고 물 없이는 나무가 자랄 수 없고 나무 없이는 종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구름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존재가 구름의 존재에 의존됩니다. 종지와 구름은 아주 밀접합니다. 햇빛같이 또 다른 것에 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햇빛이 매우 중요하니 그것이 없이는 숲이 성장 할 수 없고, 인간 또한 햇빛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꾼들도 나무를 자르기 위해 햇빛이 필요하고, 나무도 나무가 되기 위해서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이 안에서 당신은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살의 눈으로써, 깨달은 자의 눈으로써 더 깊숙이 들여다 보면 그 안에서 구름이나 햇빛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음을 봅니다. 나무꾼이 먹을 빵을 만드는 밀, 나무꾼의 아버지-모든 것들이 이 종이 한 장 안에 있습니다.”<sup>12)</sup>

위에 제시한 생태학적 세계관으로의 개종을 위해서는 삶 전체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생활양식의 변화가 요청된다. 환경문제가 결코 여러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닌듯이 생태학적 개종을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생태학적 개종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양식을 제시해 본다.

#### IV. 생태학적 개종을 위한 새로운 생활양식

지난 4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경제성장제일주의이다.<sup>13)</sup> 성장과,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지배적인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주의에 매몰된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생태적 사회를 향한 대규모의 장기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생태학적으로 분명히 파괴적이지만 너무나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는 기존의 생산과 소비의 양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다(Naess, 1989: 87쪽). 그런데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성장 제일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늘상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며 자기가 진정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길을 지레 포기해버린다. 성공의 신화와 출세이데올로기에 매달리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 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 느낌이 철학이 관심을 끌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소나마 바뀌기 시작했다. 달리기 경주에서 뒤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뛰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앞에 가는 토끼는 이야기 속의 토끼처럼 낮잠을 자지 않고 가속도를 더 하여 계속 뛰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뛰게 만들고 빨리빨리병에 걸리게 하는 지금까지의 생활양식에 대한 변화가 없이는 생태학적 개종은 불가능하다. 생태학적 개종의 철학적 기반은 ‘느림의 철학’이다.<sup>14)</sup> 느리게 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연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

12) 틱낫한(1991), 86쪽에서 인용.

13) 프랑스 녹색당은 이것을 ‘생산주의’(productivisme)라고 부른다. 생산주의란 삶의 질의 향상과 무관하게 경제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생산주의는 개인에게 환경파괴적 소비양식을 강요한다. 그러므로 프랑스 녹색당은 이제 생산주의로부터 벗어날 때라고 선포하며 ‘반(反)생산주의’(antiproduktivisme)를 천명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를 하나의 독자적인 체계로 보고 거기에 인간의 삶과 자연을 종속시키는 ‘경제주의적 사고’ 자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그 역으로 경제로 하여금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의 한 부분인 인간을 섬기도록 해야 해야할 때이다(Feing, 1994: 51-55쪽).

다. 느리게 사는 삶은 자발적으로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생활수준(standard of life)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문제인 것이다. '좋은 삶'(good life)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sup>14)</sup>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는 자발적으로 소박하고 단순하고 적은 소비생활로 기쁨을 누리는 대안적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도 요 몇 년 사이에 무엇에 쫓기듯 살기 보다는 앞서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보내고 천천히 여유있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세속적 성공의 추구가 분주하고 부산한 삶을 살게 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의 길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속적 출세에 대한 집착이 여유 있고 한가한 시간을 즐기지 못하게 했고 일에 대한 욕심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살아있는 순간'으로 느끼게 했다. '돈, 돈'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다. 추월 당하는 일은 언제나 패배로 인식했고 반대로 남을 추월하는 것은 언제나 승리로 생각하였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진리였다. 그러나 마음의 여유를 되찾게 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천천히 느리게 소박한 삶을 살아가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삶의 오아시스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생태학적 개종을 위한 대안적 삶의 방식 7가지를 제안해 본다.

### 1) 자기만의 시간 갖기

당신이 분주함과 신속함, 서두름과 재촉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선 하루 30분이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바쁜 일상 생활을 꾸려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소개한다. 두 사람이 누구 인지를 상상하면서 인용문을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5시가 조금 넘어 출근한다.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일하고 밤에 퇴근해서도 전자 결재나 우편 답신에 매달린다. 그러다 보면 새벽 1시에 잠자리에 들 때가 많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한겨레』, 2000년 7월 25일, 6면)

“○○○의 생활 철칙은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 따라서 새벽 5시에 일어나 그 날치 신문을 모두 챙겨 읽는다. 하루의 시작을 조간 신문과 함께 여는 그는 7시 30분께 잡히는 조찬 모임을 마치고, 10시쯤 사무실로 들러 각종 결재를 치른다. 점심 식사 전까지는 사무실을 돌며 활동가들과 만나 별 일 없는지를 챙기고, 집회 및 각종 회의, 기자 회견 등에 참석하고 나면 석양에 비친 노을이 그의 어깨를 토닥인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면 영락없는 밤 12시 혹은 새벽 1~2시. 가정에는 새벽 2시 전에 반 드시 들어간다는 원칙을 만들어 두었지만 그 약속은 자주 깨지고 만다. 그가 집에서 식사하는 건수는 월 2회. 그것마저 잘 안 지켜 하나뿐인 딸과 부인은 그의 생활에 그리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참여사회』, 2000년 7월호, 30면)

첫 번째 인용문은 20여 회나 북한을 방문해 국내 경영인 중 최고의 북한통으로 꼽히는 현대건설의 김윤규 사장의 일상이고, 두 번째 인용문은 한국 최대의 환경 운동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사무총장의 일과표이다. 우리 사회에서 무슨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쁘게 뛰어야 한다. 그것은 기업 경영이나 환경 운동 단체의 운영이나 다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초인적인 능력으로 환경 운동 단체를 이끌어가는 최열 총장은 '바쁘다'는 말과 '힘들다'는 말은 절대 안 한다. 다만 활동가들을 향해 “머리가 왜 그렇게 안 도냐?”라는 말과 “동작이 왜 그렇게 느리냐?”라는 말을 할 뿐이다. 환경 운동가는 남보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하고 그것을 빨리 동작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

14) 문명전환을 위한 새로운 삶의 양식을 탐구하고 있는 정수복, 장미란, 『바다로 간 게으름뱅이』 (서울: 동아일보사, 2001)을 볼 것. 특히 제 4부의 “새로운 삶을 위한 7가지 제안”을 볼 것.

15) '좋은 삶'에 대해서는 헬렌 니어링, 스코트 니어링(지음), 이석태(옮김)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서울: 보리, 1997)을 볼 것. 이 책은 소리 없이 사람들 사이로 퍼져서 많은 감동을 준 책이다. 이 책의 원제는 *Loving and Leaving the Good Life* 이다. 이 책은 과연 '좋은 삶'(good life), 다시 말해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각이 그 밑에 깔려 있다. 환경운동연합 말고 다른 시민 단체의 사무총장들도 다같이 바쁜 일상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 연락 오는 곳이 많아서 휴대폰을 동시에 두 개씩 가지고 다니는 환경 운동가도 있다. 그만큼 환경 운동가로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느 회사의 사장이나 사원들보다도 열심히 뛰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가가 아니더라도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것에 재빠르게 대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미 추구의 욕구와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돌아보는 여유와 성찰의 시간도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자신의 일을 더 보람있고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설문 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첫째로 자신을 위해서 좀더 많은 개인적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하며 둘째로 개인적 성장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싶다고 답하고 있다. 새로운 삶의 모습은 각자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을 때에만 만들어 갈 수 있다.

## 2) 내면의 평화 만들기

누구라도 바깥의 일을 성취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잘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육체적·정신적·영적 힘이 있어야 한다. 어떠한 성공이나 행복도 자기 자신 안에 힘을 갖지 못하면 결코 누릴 수가 없다. 내적으로 충만한 생명력이 없이는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없다.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지 “개인의 이익에 앞서 조직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개인적인 요구는 항상 조직의 요구에 밀려 자기 차례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밖으로부터 부과된 과업의 성취를 위해 일하다 지친 심신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자기 치유 능력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을 마련하고 자기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한 개인은 개인적인 내성(personal introspection)을 통해서만 생태학적 개종에 도달할 수 있다(Thomashow, 1995: 5쪽).

그러나 개인의 요구와 조직의 요구는 언제나 반대되고 엇갈리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개인적인 만족감과 성취감이 조직의 발전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21세기 이상적인 조직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 조직의 요구를 내세워 개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는 사라져야 한다. 다만 개인적인 요구가 그야말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조직의 발전과도 이어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 각자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확대해 온 것은 아닌가.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커다란 내적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난 여름 송광사에 갔을 때 보았던 “밖에서 찾지 말라”는 글귀가 떠오른다.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을 바깥에서 찾기보다는 내면의 정적과 평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적인 평화는 행복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내적인 평온함은 사랑과 연민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살핀다는 것은 내적인 평화를 위하여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과 평화의 감정을 키워나가는 것을 말한다. 내적인 평화를 달성함으로써 얻는 행복감이 세속적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내용이다. 그것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자연 속에서 감사의 마음과 경이로움을 느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 3) 녹색 감수성 키우기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연과 절연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됨을 느끼는 기회가 거의 없다. 모든 일들은 점차 사무실의 컴퓨터 화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들어 업무 경력이 늘어날수록 사무적으로 책임질 일이 많아진다. 인간은 누구나 자연에서 나와 자연으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사무실이나 지하철이나 자동차 속이나 아파트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왜 봄이 오면 몸 전체가 근질근질해지고 들판으로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

는가? 그것은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본성이며 우리 몸의 감각기관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낮에는 땅 내음을 맡고 새소리를 들으며 들판을 걷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별들과 은하수를 바라보며 자연과 하나될 수 있게 태어났다.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연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교감하는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때때로 어깨 위로 내리쬐이는 햇빛의 다독거림을 느낄 수 있고, 비가 온 뒤 숲 속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머리를 맑게 비울 수 있으며, 바람의 속삭임을 귀담아 들을 수 있으며, 연못 속의 물고기와 개구리, 소금쟁이의 움직임에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으며, 여름날 대나무 숲 속에서 울어대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고, 새들의 노래 소리에 잠을 깨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나무와 숲, 바위와 이끼, 비와 눈, 강과 바다와 습지, 하늘과 구름, 이름 모를 풀꽃, 피어나는 꽃봉오리, 두꺼비, 나비, 잠자리, 장수하늘소와 교감할 수 있는 '녹색 감수성'이야말로 조화로운 삶의 기본 조건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연의 순환 현상에 민감하고 모든 자연 현상을 예민하게 느낄 줄 아는 사람이다. 도시에서 자라난 사람일수록 아무 생각 없이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자연 속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려나가야 한다. 그것이 녹색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얻는 생태적 에너지야말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엄청난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민간환경단체들의 '생태기행'과 환경탐사 프로그램들은 바로 이와 같은 녹색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16)</sup>

#### 4) 느림의 생활 양식 만들기

바쁨의 생활 양식은 사유 능력과 성찰 능력을 퇴화시키는 동시에 정서적으로 둔감하고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인간을 양산해 낸다. 바쁨은 인간 관계를 도구적으로 만들고 '보살핌'의 질을 떨어뜨린다. 바쁜 생활은 빠름의 생활로 이어지고 느림의 생활로부터 멀어진다. 바쁘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빠름을 숭상하게 만든다. 그러나 자신이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넘어서 지나치게 일에 문혀지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의욕의 상실이다. 많은 양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일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항상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에게는 삶이 짐이고 하루하루가 시간에 쫓기는 지옥이다. 그러므로 일을 줄이고 단순화하는 동시에 꼭 해야 할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조직 생활에서의 성취를 위해 가족 생활과 자신의 사생활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생활 양식이 우리들의 삶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 실제로 우리들은 할 일이 많은 무척 바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에 쫓기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느림의 생활 양식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느림은 게으름과는 다르다. 느림의 속도는 자연의 속도를 말한다. 자동차의 속도가 아니라 보행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느림의 생활 양식이다. 느림의 생활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바쁘고 긴장이 많은 생활을 하다 보면 영성이 고갈되고 주체적 판단 능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신의학적으로 말하자면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빠른 생활, 쫓기는 생활에서 오는 정신적 긴장을 풀기 위해 순간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음주와 성적 쾌락의 추구가 바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찾는 가장 흔한 도피처이다.

이제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바쁜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여유있게 숨쉬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바쁜 시간 속에서나마 한가로운 오아시스를 마련해야 한다. 그 오아시스에서 우리는 문화적인 삶의 시간을 갖는다. 인간적 성숙을 위한 문화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문화 향유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인문학과 예술 그리고 모든 창작 활동과 공연 예술을 통해 미적 감수성을 키우고 삶과 사회와 자연을 관조하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값싼 대중 문화의 세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문화적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6) 이를 '체험환경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다. 환경부(2000, 74쪽)를 참조할 것. 유네스코(1999), 서울 YMCA(1996) 등의 체험 환경교육을 위한 가이드북의 제작은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 5) 가난한 삶의 자발적 선택

위기에 처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대량 생산·대량 소비·대량 폐기의 생활 양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 각자가 대량 생산-대량소비의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불필요한 욕망을 만들어 그것을 충족시키는 엄청난 소비 지향적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행복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구는 점점 더 커져 오히려 욕구의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러한 만성적 불만 상태에서 벗어나고 위기에 처한 생태계를 구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생활 양식이 바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다.<sup>17)</sup>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기본적인 욕구 충족도 못하는 절대적인 빈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녹색평론』의 발행인 김종철 교수가 말하듯이 “가난이라는 것은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어 사는 공생의 삶에서 필수적인 것”이며, 문명 전환을 위한 대안적 삶의 양식은 가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 물질적 욕구가 아니라 정신적 욕구를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자리에 불필요한 욕망을 만들 기보다는 훨씬 더 고상한 열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일상의 세속적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어야 한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내려와 ‘절제라는 이름의 풍차’로 들어가야 한다. 부유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중 소비 사회에서 절제와 자발적 가난을 삶 속에서 실현하며 안빈낙도(安貧樂道)와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며 청빈(淸貧) 사상과 무소유의 사상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안분지족(安分知足)하고 소욕지족(小慾知足)할 줄 아는 사람은 덜 갖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덜 갖고도 얼마든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크고 많은 것에서보다 작고 적은 것 속에 있다.

『무소유』라는 수필집을 쓴 법정 스님은 항상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벗어난 충만감’을 이야기해 왔는데 『오두막 편지』라는 수상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출가 수행자는 무엇보다 가난해야 한다. 자신의 분수와 가난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가난 속에서 도심(道心)이 우러난다. 가진 것이 많고 거느린 것이 많으면 출가의 뜻을 잃는다. 수행자에게 가난이란 맑음, 청정(淸淨) 그 자체다. 출가 수행자는 세속의 자로 재어 가난할수록 부자다. 모자라고 텅 빈 그 속에서 넉넉한 충만감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출가 수행자가 아니다. 세속에 머무르면서 출가 수행자와 같은 삶을 살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출가 수행자와 같은 방향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6) 성찰성과 영성(靈性) 키우기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신념이 분명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항상 성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일일삼성(一日三省)’이라는 말이 있다. 아침·점심·저녁, 이렇게 하루에 세 번씩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뜻이다. 할 일이 많을수록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일뿐만이 아니라 일을 통하여 만나는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며 실수와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생활화해야 한다. 성찰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인간적인 성숙을 경험하며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17) ‘자발적 가난’의 철학에 대해서는 엘진(1999)과 슈나이더(2000)를 볼 것.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알뜰 상점을 이용하는 것은 단지 돈을 아끼는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생태적 행위이다(서울 YMCA 녹색가게 사무국, 2000).

성찰성이란 곧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물끄러미, 조용히, 좀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는 능력을 말한다. 성찰성의 증진을 통하여 위기와 애매함과 갈등과 논쟁과 불확정성의 순간들에 올바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불가결한 차원의 하나가 '초월에 대한 욕구'이다. 사람의 초월에 대한 욕망은 인간성에 깊이 내재하고 있는 충동인지도 모른다. 초월 충동은 자연이나 우주적 연관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봄으로써 획득되는 정신적 체험을 통해 비로소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을 떠나 거룩하고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상태와 자신을 이어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정신적 에너지인 영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수련과 수행이 꼭 필요하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바쁜 생활에 시달릴수록 자신의 치킨 몸과 마음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요가, 참선, 단전호흡, 기공, 명상 등 다양한 심신수련 방법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 꾸준히 정진하는 것도 영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7) 보살핌의 윤리 실천하기

세상에는 어차피 강자와 약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육강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배와 정복의 논리가 횡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움직일 때 세상은 결코 살만한 세상, 살고 싶은 세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은 지배와 정복의 윤리가 아니라 보살핌과 나눔의 윤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면 어머니를 떠올린다.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어머니는 항상 보살피는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성'이 가족내의 자기 자식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생명체에게로 확산될 때 세상은 살고 싶은 세상이 될 것이다. 보살핌의 윤리는 언제나 약육강식의 논리를 뛰어 넘는다. 이제 우리는 노인과 장애인, 노숙자와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동포와 북한 동포 등 모든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포함하여 온갖 생명 있는 것들로 보살핌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 21세기를 여성의 세기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와 같이 보살핌이라는 여성적 가치가 사회 전체로 퍼져가는 시대를 말할 것이다.

보살핌이란 타자 특히 약자의 관심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어머니가 말 못하는 젖먹이 아이를 대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보살핌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보살핌의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음과 이해심, 그리고 인내심이 요구된다. 보살핌의 윤리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기하학적 엔지니어링이다. 그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섬세하게 살피고 그것에 적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홍수가 나서 물에 빠진 원숭이가 재빠르게 나무에 올라가 화를 면한 다음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살리겠다고 물결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는가?

보살핌은 단순히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남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살피는 사람에게는도 많은 것을 가져다준다. 다른 생명체를 보살피면서 사람들은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영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실제로 의학 연구를 통해 보더라도,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고혈압, 두통 등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롭다는 것이다.

## V. 결론

개인적 차원에서의 생태학적 개종과 사회 구조 차원에서 생태사회로의 전환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그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주류의 사회과학은 사회구조적 접근을 강조하여 개인 행위자의 적극적인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사회구조나 이데올로기의 수인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입장은 숙명론이나 비관론으로 빠지거나 과도하게 급진적인 행위

양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 주체의 생태학적 개종과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 이루는 생태적 조직들이야말로 생태사회의 생태적 생활 양식을 지금 여기에서 실천하는 생태적 공동체가 될 것이다(녹색연합, 2000)

새로운 사회환경교육의 패러다임은 이와 같은 심층적 의미에서의 생태학적 개종을 돕는 환경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위기 의식의 조장과 구체적 실천 지침의 제시가 아니라 개개인의 가치와 의식 세계를 존중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태학적 성찰과 명상을 통해 스스로가 생태적 주체로 태어나게 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지식을 전달하거나 행위 양식을 내면화시키려고 할 때는 교사와 학생의 구분이 뚜렷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환경교육의 패러다임에서는 교육을 시키는 주체와 대상의 구분이 없다. 자연 속에서 행위 주체가 녹색 감수성을 발전시키면서 스스로를 변화시켜나가는 것이다. 교사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적 차원의 심층적 태도 변화와 삶의 양식의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것의 활성화를 돕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에 한정될 것이다. 또 새로운 사회환경교육에서는 환경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환경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가 중요하다(Gough, 1987: 50쪽). 그러한 녹색 감수성을 통해서만 생태학적 개종이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환경위기는 현대문명의 위기로 인식되어야 한다(Brown, 1996: 5쪽, 정수복 장미란, 2001: 136-138쪽). 그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문명전환을 위한 새로운 행위주체의 형성에 있다. 그렇게 볼 때 사회환경교육이란 새로운 문명으로 이끈 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지금 여기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남순 (1998).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기독교서회
- 김성수 (2001). 『합석헌 평전』 서울: 삼인
- 김종철(편) (1993). 『녹색평론선집1』, 대구: 녹색평론사
- 녹색연합 (2000). 『생태마을 길라잡이』 서울: 녹색연합
- 니어링, 헬렌, 스코트 니어링(지음), 이석태(옮김) (1997).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나무리』 (서울: 보리
- 박영신 (2001). "도전하는 '생태주의'와 가치이론의 재구성," 『현상과 인식』 통권 83호(2001년 봄 여름호): 103-126쪽
- 박이신 (1998).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서울: 당대(개정 증보판)
- 서울 YMCA, 삼성전자 (1996). 『서울의 물을 찾아서』 서울: 서울 YMCA
- 서울YMCA녹색가계운동사무국(위임) (2000) 『재활용 알뜰상점 가이드북』 서울: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 슈나이더, 레기네(지음), 조원규(옮김) (2000). 『새로운 소박함에 대하여』 서울: 여성신문사,
- 엘진, 듀안(지음), 김승욱(옮김) (1999). 『소박한 삶의 철학』, 서울: 바다출판사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기획) (1999) 현진오, 김사홍(지음), 『설악산 생태기행』 서울: 따님
- 정수복 (1994). 『의미세계와 사회운동』 서울: 민영사
- 정수복 (1996). 『녹색대안을 찾는 생태학적 상상력』 서울: 문학과지성사
- 정수복 (1999). "제3의 길로서의 생태주의 패러다임- 정치적 대안에서 문명사적 대안으로," 『현대사상』 1999년 1월(통권 7호): 248-267쪽
- 정수복 (2000). "대안적 사회발전 모델과 대안적 과학기술," 계간 『과학사상』 제 33호(2000년 여름호), 192-206쪽
- 정수복/장미란(2001). 『바다로 간 게으름뱅이』 서울: 동아일보사
- 턱날한(지음), 강옥구(옮김) (1991). 『평화로움』 서울: 장경각
- 환경부 (2000). 『새천년 국가환경비전과 추진전략』 서울: 환경부
- Brown, Lester (1996). "Launching the Environmental Revolution," in Y. Suzuki, K. Ueta and S. Mori(Editors), *Global Environmental Security*, Berlin: Springer: 5-16쪽

Foing, Dominique (1994). *Les Livres des Verts*, Paris: Editions du Felin

Gough, Noel (1987). "Learning with environments: Towards an ecological paradigm for education," in Ian Robottom(ed.), *Environmental Education: Practice and Possibility*, Victoria, Australia: Deakin University

Naess, Arne (1989).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omashow, Mitchell (1995). *Ecological Identity*,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